

시미즈카제(清水風) 유적 [덴리시 오지초 시미즈카제 · 시키군 다와라모토초 가라코]

덴리(天理)시 오지초(庵治町)에서 시키군(磯城郡) 다와라모토초(田原本町) 가라코(唐古)에 걸쳐 있는 야요이시대의 유적으로 집락과 묘역이 확인되고 있다.

집락은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과 야요이시대 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두 시기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운영되었다.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의 집락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목제품이나 석기, 동물뼈·종자 등은 거의 없고 공헌(供獻)토기나 그림토기, 붉은 칠(朱)을 한 토기 등이 많은데 일반적인 집락의 토기 구성과는 다른 양상이다. 그래서 일반 집락이라기 보다는 제사장(祭祀場)으로 파악되고 있다. 묘역은 야요이시대 중기 초두의 방형주구묘와 야요이시대 후기 말의 방형주구묘의 두 시기가 있는데 집락의 운영 시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본 유적의 남남동600m에 있는 가라코·가기(唐古·鍵) 유적의 묘역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이 같은 특징은 가라코·가기 유적과 긴밀한 관계였음을 상정해볼 수 있다.

지금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유구는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유적 중앙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의 하도(河道)를 들 수 있다. 하도 안에서 다량의 토기, 흙반이(泥除)미완성품, 고석(敲石), 방울형(鐸形) 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. 주목할 만한 자료로는 다량 출토한 그림토기와 전한(前漢)의 거울(鏡) 파편을 들 수 있다. 그림토기의 출토 수는 가라코·가기 유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토량이 많으며 사슴·물고기·인물·배·건물·화살 등이 그려져 있다. 개별로 그려진 그림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그려진 그림토기도 발견되었다. 이 그림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된 항아리의 몸통 윗부분에 화살에 맞은 사슴, 물고기와 어량(筥), 새 분장을 하고 창과 방패를 쥔 사람이 두명, 고상식 건물이 연속하듯이 그려져 있다. 야요이시대 그림토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. 새 분장을 한 인물(샤먼)을 그린 토기는 이 밖에도 더 있는데 본 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있다. 전한의 거울 파편은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고분시대 초두의 토기를 포함하는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긴키(近畿)지방에서 출토된 전한의 거울은 본 자료를 포함해도 예가 세 건밖에 없다. 입수 시기나 입수 경로 등 향후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.